

# 달아오른 월드컵 응원 열기 학교도 병원도 “대~한민국”

## 夜自 교실관람 허용·환자들도 함께모여 응원

한국팀이 월드컵 1차전에서 그리 스립을 2-0으로 시원스럽게 완파하면서 응원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의 2차전 상대팀인 아르헨티나가 전력상 최고팀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한국팀이 무승부를 넘어 또다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응원 준비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월드컵 1차전에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정이나 호프집 등에서 열렸던 응원이 점차 학교나 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어학원이나 보습 학원 등도 응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 수업 시간을 약간 단축하거나 수업을 다른 날로 연기하는 등 조정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나 각종 모임을 2차전에 맞춰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조대부고 등 광주·전남 일부 학교들은 2차전이 열리는 오는 17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교내에서 단체 응원을 나설 계획이다. 어차피 학생들이 축구에 정신이 팔려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응원을 마련키로 한 것.

조대부고 관계자는 “1~3학년 전체 응원을 계획중에 있다”면서 “하지 만 응원보다는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학년당 1개 교실은 자율학습 공간으로 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교대도 1차전에 이어 운동장에서 2차전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1차전에 수 천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인 점을 감안, 2차전에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응원 준비를 하고 있다.

밝은안과21도 병원 내 응원 준비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2시간 동안의 응원을 통해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편 전 직원들의 단합의 자리로 활용 방침이다. 병원측은 10여명의 입원 환자와 직원 등 60여명이 병원내 텔레비전 앞에서 응원을 펼치기로 하고, 응원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고 있다.

동신고 17회 동창회원들은 이달 하순 모임을 17일로 변경, 회원 식당에 모여 단합대회 겸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장·마·온·다

### 광주·전남 18일부터 시작 ... 한달간 지속

광주·전남은 지난해보다 3일 빠른 오는 18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지방은 18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돼 20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방 장마 시작일은 6월 21일, 중부지방은 6월 28일이었다.

14일까지 중국 남부 동해안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7일 제주지방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으로 비가 오겠다. 이 비가 남부 일부 지방에는 20일까지, 제주에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예상대로 장마가 시작된다면 이는 제주와 남부지방의 경우 작년보다 3~4일, 중부지방의 경우 작년보다 9일 이른 것이다.

현재 장마전선이 서쪽으로는 중국 남해안에, 동쪽으로는 일본 남해안으로부터 400~500km 남쪽의 해상에 걸쳐 형성돼 있으며,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주말께 우리나라 근처로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하순(21~30일)에도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지역에 따라 호우가 내리는 등 장맛비가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 종료일에 대한 예상은 내놓지 않았다. 장마 전선은 보통 한달 가량 지속된다.

21일에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은 24일 이후에 다시 북상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8분 달돋이 07시 58분 달질 22시 16분

**관적관적한 공기**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나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오후한대비 20/29℃ 하림 19/26℃	0.5~1.0m
목포	하림 20/25℃	0.5~1.5m
여수	하림 18/28℃	0.5~1.0m
완도	오후한대비 20/30℃ 하림 19/28℃	0.5~1.0m
구례	하림 19/28℃	0.5~1.0m
영광	하림 18/27℃	0.5~1.0m
장흥	하림 19/27℃	0.5~1.0m
고흥	하림 20/28℃	0.5~1.0m
순천	하림 19/27℃	0.5~1.0m
영광	하림 20/27℃	0.5~1.0m
진도	하림 19/28℃	0.5~1.0m
전주	오후한대비 20/28℃ 하림 19/27℃	0.5~1.0m
남원	하림 19/27℃	0.5~1.0m
목포	하림 17/22℃	0.5~1.0m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0.5~1.5m 높음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0.5~1.0m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목포 04:17 09:2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16:17 21:2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10:55 04:5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23:35 16: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31	19/30	21/28	21/27	21/28	21/28

## ‘노인 학대’ 72%가 자녀·며느리·사위

### 7명 중 1명꼴 학대 경험 ... 처벌 10년이하 징역으로 높여

우리나라 노인들은 7명 중 한 명꼴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한 적 있으며 이들 학대의 대부분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존속 폭행 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앞두고 전국 노인 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노인 6745명과 일반인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받은 적이 있으며, 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학대 가해자는 자녀가 50.6%, 배우자가 23.4%, 자녀의 배우자가 21.3%로 자녀 세대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남북 평화·화해협력력”

### 6·15공동선언광주전남본부

6·15공동선언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14일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대결과 전쟁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전쟁패권주의자들을 제외한 어떤 나라 사람에게도 지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천안안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관계를 경계하며, “평화와 화해협력과 상생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인류의 공생 번영의 길을 가야 할때”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은 음식 제로” 14일 광주시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남은 음식 제로화 교육’에 참석한 광주시 새마을부녀자회(회장 최정덕) 소속 회원 400여명이 친환경 식재료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수경스님, 주지·승적 반납 잠적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벌여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61)스님이 서울 회계사 주지 자리를 내놓고 조계종 승적도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경스님은 14일 측근에게 전한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 먼저 회계사 주지 자리부터 내려놓는다. 조계종 승적도 내려놓는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수경스님은 이 글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보면서 나 자신의 문제가 더욱 명료해졌다. ‘한 생각’에 몸을 던져 생물을 아우르는 모습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며 “대접받는 중노릇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글을 이었다. 충남 청양출신인 스님은 1967년 수덕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연휴스

**순록시리 농도** 웰모라도리조트

**시너지스** 매일운강: 5월 31일부터 (최신형 콘택트리스)

1인실	18,000원/1박	18,000원/1박
2인실	19,000원/1박	19,000원/1박
3인실	21,000원/1박	21,000원/1박

7월도리도리조트 숙박 - 15명 2인기(1인)

1인실	114,000원/1박	153,000원/1박
2인실	114,000원/1박	153,000원/1박

**제발 밤추기만 해도 땀땀**

**마이뉴실**

마이뉴실 입상결과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문의: 080-024-5529 / 02-2607-3862